호남 반도체 산단 교통망 확충…광역도로망 연계

2030년 조성 맞춰 네 방향 진입道 확보

광주-강진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 연결

물류 수송·근로자 출퇴근 편의성 제고

산단 조성계획에 반영…사업기간 단축

오는 2030년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요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충이 본격 추진된다.

산단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방향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전남 주요 권역을 잇는 광역도로망과 연계해 물류 수송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산단 내부에 남북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를 조성하고 이를 주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에 연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자 기업들이 산단에서 주요 고속도로와 광역도로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진입도로는 방향별 교통 여건에 따라 신설과 확장, 기존 도로 활용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산단 동쪽에는 광주-강진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이 고속도로는 광주 서구 벽진동과 강진군 성전면을 잇는 총연장 51.1㎞ 노선이다. 연결도로가 확보되면 광주 제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기가 수월해지고 전남 서남부권으로의 이동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제6회 동명커피산책' 제6회 동명커피산책 행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에서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지역 커피 브랜드 23곳의 다양한 커피를 맛보면서 동명동 골목과 문화공간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

나주 방면의 교통망도 보강한다. 산단 남쪽에서 지방도 49호선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신설해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으로 연결되는 이동 경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단에서 나오는 화물차량이 광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해안과 수도권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물류 수송 경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쪽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왕복 4차로로 추진 중인 월전동-무진로 도로 개설사업을 산단과 연결하고 왕복 8차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도로는 광주공항 일대에서 나주 동곡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로 국도와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과 연결된다.

북쪽은 별도의 도로 신설 없이 기존 왕복 8차로인 송정대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상무지구와 KTX 광주송정역, 반도체 산단을 연결해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광주 도심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진입도로 확충은 전남광주시가 계획 중인 광역 고속도로망 구축사업과도 연계된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에 걸쳐 9개 노선, 총연장 372.2㎞ 규모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권에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부권에는 영암-광주, 진도-영암, 강진-광주, 강진-완도 고속도로 등이 포함됐다.

동부권에서는 고흥-광주와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광역도로망이 구축되면 반도체 산단과 서남·동부권 주요 산업거점, 항만·공항 등 물류시설 간 교통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도 검토해 반도체 산단의 교통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가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입도로를 산단 개발과 별개로 추진할 경우 노선 결정과 설계, 인허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030년 산단 조성 목표에 맞춰 개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광주시는 진입도로 건설을 산단 조성계획에 포함해 산단 조성과 도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산단 기반시설로 반영되면 별도 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행정절차를 줄이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산단 조성계획에 도로 건설을 함께 반영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오늘 첫 행감…정책·예산 검증

15일까지…12개 상임위 분야별 현안 감사

시정·교육행정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1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15일 14일간 시청과 교육청, 소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개 상임위원회는 정책기획·재정·행정·소방을 비롯해 AI·반도체·환경·농수산·에너지·산업·경제·교통·문화·관광·복지·교육 등 소관 분야별 업무를 파악하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행정통합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과 예산이 적절하게 추진·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의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광주의 AI·미래차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과 광주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시, 소아응급환자 진료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대병원이 2027년 4월30일까지 인력·장비·시설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소아 응급실 쏠림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에 28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 12곳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1곳 운영에 20억원을, 의료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3곳에 8억2천만원을 투입한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 농지관리 전담기능 강화해야"

전남연구원, 농지법 개정 대응 제언

농지법 개정과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국내 최대 농지 보유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지관리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전남광주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광주는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이 28만2천ha로 전국의 18.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농지 보유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남연구원은 개정 농지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특별시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농지 전수조사 지원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소명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상속·고령농의 농지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으로 연계해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영농 기반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국의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 농가는 1990년 25만7천896호에서 2024년 4천601호로 급감했다.

이에 고령농의 은퇴·상속 농지를 청년농과 후계 경영주체에게 연결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농지관리계획과 농지은행 사업에 연계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미래세대 이양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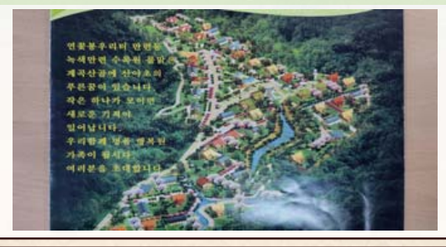
1 매물목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구 분	지 번	지 목	면 적 ㎡	면 적 평	가 격	상세내용
한 옥	514-31 (만년동길 84-13)	대 지	1,422	431	4억원	✓ 고급목재 사용 고품격 한옥 ✓ 덕룡산(용이 승천) 산세 수려 ✓ 유명 낚시터 인접
		주 택	109	33		
		사 랑 채	21	6.4		
대 지 이동식 건 물	510-43	대 지	1,055	320	1억원 6천만원	✓ 환매분으로 전원마을 중앙위치 ✓ 이동식 건물 사랑채 활용 可
		이 동 식 건 물	35	11		
미분양 대 지	510-69 外 3필지	대 지	1,000	303	1억원 2천만원	✓ 국유지 불하로 분양지연된 마지막 잔여매물
	508-35	생활근린 시설용지	606	184	1억원	✓ 한방치료(요양) 시설 적합 ✓ 공원부지(약 1천평) 인접, 활용 可
임 야	산 247	임 야 (휴양림)	19,545	5,923	평당 2만원	✓ 편백식재 5년차(국가 지원) ✓ 임도, 전기 및 수도시설 완비
	산214-13 外 5필지	임 야 (조경수)	39,872	12,082	평당 2만원	✓ 98년 산림경영승인, 임업직불금 수령 ✓ 조경수(적송) 재배, 판매중
과수원	산 245-6	임 야	6,369	1,930	평당 5만원	✓ 단감(월추) 5년생 : 250주 ✓ 농업직불금 수령
	산245-8 外 1필지	임 야	10,049	3,045	평당 5만원	✓ 단감(태추) 5년생 : 200주 ✓ 감(대봉) 300주 단감(태추)로 수종갱신중 ✓ 5평 농막, 급수시설 완료, 농업직불금 수령

2 매물소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① 마을전경

분양당시 홍보자료



만련전원마을 항공사진



② 한옥 [만봉리 514-31, 만년동길 84-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옥 매매
(나주시 봉황면 만년동길 84-13)

- 대지 : 1,422㎡ · 본채 109㎡ / 사랑채 21㎡
-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KTX 나주역 20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정된 광주공항 차로 30분
- 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초대형 국책사업 인근 부지 확정
- 49세대 전원주택단지로 기반시설 완비
- 최고급 목재로 지은 한옥, 사랑채/정자(2개)/저온저장고 등 전원생활 시설완비
- 귀농, 귀촌 전원생활 최적
- 만봉리 산 245-8 외 1필지 과수원 10,049㎡ 동반매매(별도가능) 약 1.5억원 매(평당5만원), 동 과수원은 인기품종 단감(태추) 5년생으로 수확 시작, 급수/전기/수도 완비 및 관리사 1동 설치

매매가 4억원 주인 직거래

③ 대지(이동식건물 포함) [만봉리 510-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전원주택 부지매매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KTX 나주역 20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확정된 광주공항 차로 30분

- 대지 1,055㎡ 연 35㎡
- 이동식 주택 설치되어 있음
- 넓은 텃밭에 과일, 채소 등 재배로 여유로운 전원생활 가능
-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완비
- 주택 신축시 장기저리 융자 가능 (1세대 2주택 미해당)
- 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초대형 국책사업 인근 부지 확정

매매가 1억 6천 주인 직거래

만련전원마을 추진위원장 H.P 010-8949-9376